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1999

**KOREAN**  
**FOR BACKGROUND SPEAKERS**

2/3 UNIT (COMMON)

**SECTION I**  
**PROCESSING SPOKEN INFORMATION**

TRANSCRIPT

## PART A

## PASSAGE 1

20대의 한창 나이였을 때, 버스에서 정신없이 졸다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 안달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은근히 경멸하는 마음이 있었다. <얼마나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엉망으로 생활을 했으면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버스 속에서 저렇게 입을 벌리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졸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들을 무절제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던 바로 나 자신이 어느 날 귀가하는 버스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졸다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한 정류장도 아니고 두 정류장이나 지나치는 실수를 범했다. 너무 피곤한 탓이었다고 자위를 했던 내 모습 역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이중 잣대의 실상임을 깨닫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위대한 사람은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편협한 사람은 남에 대한 험담과 판단을 한다고 한다. 자신에게는 관용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이제 바꾸어잡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21세기를 바라보자.

〈조선일보 1993.8.10〉

## PASSAGE 2

남: 흔히 아버지에게도 엄연히 세대 구분이 있다고들 합니다. 60대 이상의 1세대는 아버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2세대는 할아버지의 전통적 가치관을 수용하면서도 자식에게는 전달하지 못하는 가치 혼란의 세대입니다. 3세대는 완전히 신세대여서 자유분방하게 행동합니다. 요즘 젊은 가정을 보면, 가정 교육이 엉망인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위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 30대 아버지들이 자식과 격의없이 지내는 데에는 자신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자식에게 표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맹목적으로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남: 옛날에는 가정 교육이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은 젊은 아버지 세대가 가정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 신세대 아버지들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 인생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전통적 가치관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EBS FM 라디오, 고교 국어 듣기〉

## PASSAGE 3

## 송편

무수한 속담에 떡이 등장하는가 하면, 특별한 날에는 떡을 빚는 우리들이고 보면 떡은 참으로 강한 토착성과 전통성이 담긴 음식이 아닐 수 없다. 대체로 동양 삼국에서는 각기 다른 재료를 위주로 떡을 만들었으니, 중국에서는 밀가루, 일본에서는 찹쌀가루, 우리나라에서는 멥쌀가루였다.

이 가운데 멥쌀가루를 반죽한 뒤 깨 팥 콩 밤 등으로 소를 넣어 반달모양이나 조개모양으로 빚어내는 송편은 우리 추석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송편을 만들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고려말 이색이 쓴 <목은집>에 팥을 넣은 차기장떡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적어도 그 시기가 고려 이전임은 분명하다. 조선 정조 때 유학자 홍석모가 쓴 <동국세시기>에는 "중화절 송편을 만들어 노비에게 나잇수대로 나눠주는 풍속이 있었다."는 구절과 함께 "팔월 추석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고 차례를 모시고 성묘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송편은 인절미나 백설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옛사람들은 추석 외에도 아기의 돌이나 혼례식 등에 곧잘 송편을 빚었는데, 이는 송편 하나하나를 꼭꼭 뭉침으로써 '단단하게 잘 살라'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편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소를 넣지만, 시루 밑바닥에 솔잎을 깔고 찌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다. 솔잎의 향기는 깊은 숲속의 향기와 공기를 맛볼 수 있는 피톤지드향의 주성분일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혈액을 정화시키며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뉴스 플러스 제 154호 1998.10〉

## PART B

1896년은 한국에 있어서 구시대가 막을 내리고 개화의 여명이 열린 해다. 지방마다 분쟁이 잦았고, 많은 관료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일부 반란군들은 서울을 함락시키려고 위협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점점 점령지에서 밀려났으며, 각 분야의 많은 일본인 자문가와 고문관들은 계약이 만료되었고 다시 체결되지 않았다. 일본의 권세가 제 수명을 다하는 동안 일본에 의해 몇 가지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런 조치들은 다시 뚜렷이 후퇴하는 경향이 있었다. 친일적인 정권은 전국에 걸쳐 붕괴되고 있었다.

국내의 일반적인 소요와 몇 가지 심각한 소요들은, 우스울지 몰라도 의복과 관습에 대한 한국인들의 강한 보수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소요의 원인이 1895년 12월 30일 단발령에 의해 상투를 자르게 한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발령은 전국을 들끓게 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국모를 시해하고, 국왕을 사실상의 구금상태로 만든 저 가증스러운 권력의 힘이 이제 그들의 머리카락에까지 미치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상투는 한국인들에게는 중국인들의 변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중국의 변발은 제복의 상징이나 조정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정도였으며, 어린 중국소년은 그의 머리카락이 땅을 수 있을 만큼 길었을 때부터 변발을 했다.

이에 반해 한국인에 있어서 상투는 국적과 창고한 역사, 고결함, 전통을 의미하며, 그 후로 불리워지는 그의 성에 더해서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됨을 의미하며, 이로써 족보에 올려지게 됨을 의미한다. 결혼과 상투와의 밀접한 관계는 조상 숭배와 제사와의 관계에 닿아 있다. 상투가 없는 조선인은 비록 성인일지라도 이름도 없는 미성년으로 취급되었다. 어떤 조선인은 이와 같은 취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의 가족을 먹여살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할지라도 상투 의식과 망건, 갓, 도포 일체를 살 수 있는 돈을 긁어모으기도 하였다. 그러나 십중팔구 상투는 오로지 결혼의 상징일 뿐이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반편'이라는 불명예스런 칭호가 붙여졌다.

백성들에게 단발령이 밭살스럽게 여겨진 이유는 일본에 의해 한국인이 일본인과 똑같이 보이게 하려는 수작과 일본식 관습에 맞추려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으로부터 국민성을 빼앗는 것이 일본의 의도라는 믿음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상투 폭동이 일어난 곳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야만적인 행동이 공공연히 일어났고 때때로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나라는 상투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으로 온통 들끓었다. 머리카락을 자른 고위 관료는 격분한 주민들에 의해 그들의 지위를 박탈 당하고 어찌면 목숨까지 잃을 위험도 있었다. 반대로 상투를 유지한다면 그는 즉시 정부로부터 해임되기도 하였다. 또한 머리 깎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목재, 토산물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생필품의 가격은 심각하게 치솟았다. 어떤 아버지는 그의 두 아들이 단발령에 복종하여 머리를 깎은 그 비탄과 치욕을 못 이겨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 상투가 떨어졌을 때 사회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았던 것이다.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사벨라 비숍〉